

제1회 한의학아카데미

- 일 시 : 2007년 2월 3일~4일
- 장 소 : 춘천 두산콘도
- 주 최 :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대한한의학회 각 분과학회 학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회원여러분, 그리고 한의학회 이사 여러분 특히 학술지 발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편집인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날 모든 영역에서 세계의 정세는 국제화, 개방화 및 다양화 속에서 의료시장 영역에서도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학문적 배경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회의 역할도 변화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대학교내에서의 의료인 양성교육이 전통적으로 인간과 질병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무게를 두고 특정분야의 전문인으로 획일적인 의료인 양성제도였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생물학적-심리적-사회문화적인 통합적 이해와 접근능력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통합적이면서도 다양한 전문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폭증하는 의학·의료지식을 과거와 같은 강의실내 지식 전달형태로는 도저히 양질의 의사를 양성 및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능력의 배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학회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한의학회는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회원보수교육, 민원·의료분쟁의 학술적자문, 한의학용어표준화, 한국학술용어표준화, WHO IST 표준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사업 등과 같은 한의학술용어표준화사업, 한방의료보험사업과 의료용구 표준화기초연구, 한약의 안정성 유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한의학표준의료행위 분류사업 등 각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분과별학회 활성화 지원사업, 분과별학회 인준, 평가와 함께 매년 한의학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학술연구자 및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학술상 시상을 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 졸업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 중 11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홍보사업과 함께 대한한의학회 한글,영문 홈

페이지를 주축으로 하여 대한한의학회 학술 DB와 회원 DB의 틀에 분과학회의 DB 형식을 맞추어서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통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술대회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개원의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학술대회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학술회의의 효율화를 도모 하고, 외국의 유명학자들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할 작정이며, 또한 분과학회 지원을 확대하여 분과학회지의 수준향상을 적극 추진하고, 학술대회에 분과학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회원과 분과학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의학은 과학화된 한의학,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한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단합된 자세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학회가 수행하여야할 가장 중요한 사업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대한한의학회지는 물론 각 분과학회지를 국제 전문 학술지급으로 동반 진입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의학회 소속 분과학회 임원, 회원 그리고 앞으로 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학회발전에 필요한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친목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허심탄회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알차고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3일

대한한의학회장 김 장 현

제1회 한의학 아카데미 일정

□ 일시 : 2007. 2. 3(토) 17:00 ~ 2. 4(일) 11:00

□ 장소 : 춘천 두산리조트

<1일차 : 2/3(토)>

사회 : 임형호(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시간	내 용	
17:00~19:00	행사장소 이동	셔틀 버스 이용
19:00~19:50	석식	1층 한식당 소양강
19:50~20:00	개회 인사	김장현(대한한의학회 회장)
20:00~21:00	한의학용어표준화사업	이충열(대한한의학회 부회장)
21:00~22:00	학회 발전 10년 계획(안) 토의 - 논문관련 : 임성우(대한한의학회 편집이사) - 학술대회관련 : 송재철(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 - 학회운영 및 학술연구과제 관련 : 임형호(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 국제학술교류관련 : 김용석(대한한의학회 국제교류이사) - 전문의 고시 관련 : 전찬용(대한한의학회 고시이사) - 의료제도관련 : 한창호(대한한의학회 제도이사) - 의료정보관련 : 이승일(대한한의학회 정보통신이사)	각 주제별 토의
22:00~	취침(휴식)	

<2일차 : 2/4(일)>

사회 : 임형호(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시간	내 용	
07:00~08:00	조식	1층 한식당 소양강
08:00~09:00	학술지의 발간과 운영 - SCI 등재를 위한 준비	서정욱(서울대의대 도서관장)
09:00~10:00	대한약침학회의 국제화 추진 사례	강대인(대한약침학회 회장)
10:00~11:00	학회 활동 활성화 사례 발표 - 대한한방비만학회 학술대회	류은경(대한한방비만학회 회장)
11:00~11:10	폐회	
11:00~11:10	기념사진 촬영	
11:10~12:00	중식	1층 한식당 소양강
12:00~	춘천 두산리조트 출발	잘못된 계산식

목 차

◆ 개회사

▶ 한의학용어 표준화 사업.....	13
▶ 학회발전 10년 계획(안).....	39
- 학회지 발간사업.....	41
- 학술대회 관련.....	43
- 학회운영 및 학술연구과제 관련.....	45
- 국제학술교류 관련.....	52
- 전문의 고시 관련.....	56
- 의료제도 관련.....	57
- 의료정보 관련.....	61
▶ 우리나라 학술지 발전을 위한 생각.....	63
▶ 국제화 추진사례.....	73
▶ 학회활동 활성화 사례 발표.....	83

한의학용어 표준화 사업

이 충 열(대한한의학회 부회장)

한의학 용어 표준화 사업

대한한의학회
한의학 용어 및 정보 표준화 위원회

차 례

- 한의학 용어 표준화의 개념
 - 대한한의학회 한의학 용어 표준화 사업
 - WHO 국제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IST) 사업
 - 보건 의료정보 표준화 사업
 - 한의학용어 및 정보 표준화 특별위원회 소개
-

한의학 용어 표준화의 개념

한의학 용어란?

- 일반용어 vs 전문용어
- 전문용어
 - '특정 전문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
 - '학문의 분화 및 전문화로 비롯된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에 대한 표현을 위해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도입된 용어'
 - 일상생활과는 관련이 없으며 하나의 용어와 하나의 의미가 대응되는 단의어(monosemic word)
- 한의학용어: 한국의 한의학계에서 통용되는 전문용어

용어와 관련된 용어 정의

시소러스(Thesaurus)

- A terminology where terms are ordered (alphabetically) and referenced by one or multiple terms

분류(Classification)

- An arrangement of objects or concepts based on their essential characteristics –classes

어휘(Vocabulary)

- A terminology or thesaurus where the concepts have definitions
-

용어 표준화

용어의 표준화

용어 기술(description)의 표준화

용어의 표준화

□ 표준용어

특정 학문 분야에서 소정의 용어 표준화 운영규정 및 절차에 따라 채택된 용어로서 다수의 사람이 그 학문 분야의 용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용어

- Standard –“A document, established by consensus and approved by a recognized body, which provides rules, guidelines, or characteristics for activities”

- J.H. van Bommel & M.A. Musen-Handbook of Medical Informatics

표준 용어의 필요성

□ 전문가간의 의사소통

정확한 개념에 바탕한 용어의 통일로 전문가간의 의사소통을 원활

□ 일반인과의 의사소통

□ 국외 관련 전문가와의 의사소통

전문지식의 국산화로 국가 자생력 강화와 학문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국제 표준에 입각한 전문 용어 교환형식을 갖추어야

한의학 용어의 특징

- 한자용어가 많다
- 한자를 병기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다
- 오래된 텍스트들에서 나온 용어가 많으며, 근래에 새로 만들어진 용어는 드물다
- 이전의 용어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의학 용어 혼란의 원인

- 다양한 학파와 텍스트를 통해 학술용어가 제정되고 유포됨.
- 오래된 역사로 인해 용어 개념의 시대적 변화를 초래
- 현재 학술 연구자의 다양한 관점

한의학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

- 한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용어의 혼란으로 인한 전문가들의 의사소통의 혼란, 학문 발전 저해
 - 제도권 의학으로서 각종 표준화 작업의 기초 자료로 이용
 - 각종 DB 개발과 DB 검색시스템 개발에 활용
-

표준 한의학 용어의 활용

- 한의학 용어 사전
 - 한의학 논문, 서적 정보 등 한의학 관련 DB 검색용 용어 시스템
 - 임상 한의사들의 의료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 각종 표준화 사업에 활용
-

용어 표준화 관련 사이트



- 국제표준화기구(ISO) TC 37
http://korterm.kaist.ac.kr/kor_iso_tc_37/



- 전문용어 언어공학 연구센터(KAIST)
<http://korterm.or.kr>



- Bank of Language Resources(언어자원은행)
<http://bola.or.kr/>



- Core Multilingual Semantic Word net(국내최초, 최대 규모 자연언어 처리용 전자사전)
http://bola.or.kr/CoreNet_Project/

- 기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http://word.tta.or.kr/index.jsp>)
- 21세기 세종계획(http://www.sejong.or.kr/sejong_kr/index.html)

용어표준화 단계

1단계 : 용어 수집 및 정리



2단계 : 용어 분류 및 체계화



3단계 : 용어 표준화 심의



4단계 : 용어 확정 및 보고서 발간

대한한의학회 한의학용어 표준화 사업

목적

- 한의학 교육, 한방진료, 각종 공문서 작성의 표준화
 - 남북한 한의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한의학 분야 국제 표준용어 작성을 대비한 기초마련
-

용어 표준화의 목표 및 범위

- “현재, 한국에서 공인되어 사용되는 한의학 학술용어”를 기준으로 동의어, 유사어를 정리하여 표준한의학 용어를 선정
- 선정된 표준용어에 대해 정의에 준하는 해설 작업
- “표준한의학용어집”을 발간
- 표준한의학 용어의 data base화, 영문화 작업

조직

-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성
- 심의위원회
 - 위원장은 대한한의학회 교육이사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용어 선정 및 해설 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사업 추진 방향과 방법을 연구하여 결정

조직

□ 실무위원회

- 19개 정회원 분과학회 대표 1인으로 구성
- 심의위원회가 정한 용어 선정 및 해설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작업을 계획하고 진행

□ 각 분과학회 용어 소위원회

-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 각 분과학회와 관련된 용어를 선정하고 심의

경과

□ 2000. 3. -2001. 2.

-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구성
- 한의학 용어의 수집

대상 : 각 분과학회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교과서, 논문, 보고서, 기사,한의학 사전

경과

□ 2001. 3. -2003. 2.

- 각 실무위원이 중심이 되어 분과학회 별로 수집된 용어들을 정리
- 표준발음의 결정, 유사어, 동의어들 중 표준용어를 선정
-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용어선정의 기준에 따라 다시 정리
- 1차적으로 18,000여 개의 용어에서 6,450개로 정리

경과

□ 2003. 3. -2004. 4.

- 실무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선정된 용어에 대한 간단한 정의작업
- 이 과정을 거쳐 2차적으로 5,849개의 표준용어로 정리

□ 2004. 5.-현재

- 표준용어집 내용 교정
- 출판에 앞서 인쇄지 최종 교정 중

평가

- 한의학 최초의 표준용어집으로서 의의
 - 경험부족으로 용어 선정이 체계적이지 못했음
 - 용어 표준화에 대한 인식부족
 - 이른 시기 내에 개정 작업이 필요
-

WHO 국제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IST) 사업

개요

-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of TM(IST)
 - 한, 중, 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WHO 서태평양 지구 회원국의 전통의학 (Traditional Medicine) 용어 표준화 사업
 - WHO 제네바 본부에 의해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in Acupuncture for Basic Training' (August, 2003)이 발간된 바 있음

경과

- 1차 회의: 2004년 10월 20,21일 중국 북경
- 주요 결정사항
 - 국제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에 대한 각국의 참여 의지 확인
 - 중국 시에주판(謝竹藩) 교수가 작업한 <중의 약상용명사술어영역(中醫藥常用名詞術語英譯)>이라는 책을 reference로 하고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업하기로 함
 - 전체 작업 일정 논의 후 확정

경과

- 2차 회의: 2005년 6월 27-29일 일본 동경
- 주요 결정 사항
 - 한, 중, 일 3국의 투표에 의해 그 동안 각 나라가 제안한 용어들 중에서 용어집에 들어 갈 용어 선정(약 4,200개)
 - 영어 번역어를 표제어로 하기로 하고 한의학 용어의 영역 방법에 대해 토의
 - 용어집에 수록될 내용의 기술 형식 결정

경과

- 3차 회의: 2005년 10월 18-20일 한국 대구
- 주요 결정 사항
 - 1, 2차 회의를 통해 진행된 용어 선정을 최종적으로 확정
 - 용어들에 대해 제안되어 있는 영어 번역을 결정
 -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작업 마무리

평가

- 한, 중, 일 3국이 협력하여 용어 표준화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데 의의
- 앞으로 있을 다른 국제 표준화 사업을 위한 경험 축적
- 국내 용어 표준화 사업의 중요성 인식 계기
- 한의학 용어의 영역(英譯)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음

보건 의료정보 표준화 사업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사업

- 보건의료 표준화란 보건의료 정보를 사용하는 개인, 의료기관, 업체 등에서 동일한 용어, 전송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는 활동
-

보건의료 용어의 종류

- 의료용어
 - 의무기록에 사용되는 용어.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기본 전제
 - 국제적으로 UMLS, SNOMED, ICD-9-CM, GALEN, MESH 등 용어 시스템이 사용
 - 의료행위
 - 의료용어 중 의사의 행위에 대한 용어. 의료수가 산정과 각종 통계 기초 자료
-

보건의료 용어의 종류

□ 진단용어

- 질병을 분류하기 위한 의료 용어
- WHO에서는 국제표준질병분류(ICD)를 사용하도록 권고. 현재 ICD-10이 사용
- 우리나라에서는 ICD-10을 번역한 KCD-4-KMI가 사용되고 있음

□ 병리검사용어

- 병리 및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용어
- LOINC 시스템(1994년 인디애나 대학)

보건의료 용어의 종류

□ 간호용어

- 간호기록에 사용되는 용어
- NANDA, NIC, NOC, HHCC, Omaha, INCP 등 용어 시스템 사용

□ 의약품 용어

- 의약품 관련 용어

□ 의료재료 용어

경과

□ 1단계 : 2004년 12월-2005년 11월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보건 의료정보 표준화 사업 시작
 - 의료, 보건, 간호, 의료행위, 진단, 병리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한방, 통계용어 분과
 - 미국 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1986년부터 장기 프로젝트로 개발된 의료 분야의 통합용어 모델인 UMLS (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를 기반으로 작업
-

경과

□ 2단계 : 2005년 12월-2006년 5월

□ 3단계 : 2006년 6월-2006년 10월

경과

- 한방용어 분과의 경우 1단계 사업이 시작된 후 부터 참여
- 한의계에는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및 의료행위 외에는 의무기록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용어시스템이 없는 상황
- 따라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인 용어수집부터 시작
- 각종 사전, 보건소, 일부 대학병원, KST, IST, 표준질병사인분류, 표준의료행위 등으로부터 70,000개 내외의 용어 수집

경과

- 지난 10월말까지 진행된 3단계 작업에서는 분류체계를 만들고, 수집된 용어 중 임상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용어의 삭제, 표제어와 동의어 분리 등을 통해 15,000개 내외의 표제어를 추려냄
- 2006년 12월부터 3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4단계 작업에서는 용어 사이의 관계 테이블 구축, 참조용어 개발, 양방병명과의 매핑 연구 등이 진행될 예정

평가

- 이미 다양한 용어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는 서양의학 분야와 함께 작업하면서 이들의 방법론과 개념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
 - 한의학 분야만의 특수한 상황 고려와 함께 서양의학 분야 용어 시스템과 연동 방법에 고민 필요
-

한의학용어 및 정보 표준화 특별 위원회

대한한의학회 한의학 용어 및 정보 표준화 특별위원회

- 2006년 대한한의학회 정관 개정에 따라 기존의 교육이사가 관장하던 한의학 용어 심의위원회가 한의학용어 및 정보 표준화 특별위원회로 됨
 - 2006년 12월 한의학 용어 및 정보 표준화 특별위원회 구성
-

한의학용어 및 정보 표준화 위원회

- 위원장: 이 총 열(경원대)
 - 위원 : 김 용 석(경희대)
임 형 호(경원대)
심 범 상(경희대)
엄 동 명(한국한의학연구원)
한 창 호(동국대)
백 유 상(경희대)
신 상 우(대구한의대)
이 병 육(대구한의대)
송 호 섭(경원대)
김 도 훈(경원대)
-

2006년도 추진사업

- 한의학용어 표준화 작업 지침서 개발
 - 분과학회 용어 표준화 작업을 위한 매뉴얼 개발
 - 2007년 3월 말까지 발간을 목표
-

내용 및 집필자

- 용어의 종류 및 표준용어 제정의 필요성 : 백유상
 - 용어 분류 체계와 용어 선정 : 엄동명
 - 표준용어와 국어 어문법, 한자코드 문제 : 이병욱
 - 한의학 용어의 정의방법 : 신상우
 - 표제어와 동의어 분리방법 : 심범상
 - 한의학 용어의 영역(英譯) : 송호섭
 - 용어 추가와 관리 : 이충열
 - 한의학 표준 용어의 활용 : 한창호
-

감사합니다

학회 발전 10년 계획(안)

- 학회지 발간사업 임성우(대한한의학회 편집이사)
- 학술대회 관련 송재철(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
- 학회운영 및 학술연구과제 관련 임형호(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 국제학술교류 관련 김용석(대한한의학회 국제교류이사)
- 전문의 고시 관련 전찬용(대한한의학회 고시이사)
- 의료제도 관련 한창호(대한한의학회 제도이사)
- 의료정보 관련 이승일(대한한의학회 정보통신이사)

학회 발전 10년 계획(안)

- 학회지 발간사업 -

임성우(대한한의학회 편집이사)

▣ 대한한의학회지(국영문판) 발간 (ISSN 1010-0695)

한의학의 임상적인 이론을 뒷받침하고 신의료기술개발에 일조하여 한의학 학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회에서는 매년 대한한의학회지를 년4회 발간하고 있으며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 4호는 영문판으로 발간중임.

■ 2006년도 27권 발간 현황

	제1호(통권65호)	제2호(통권66호)	제3호(통권67호)	제4호(통권68호)
발행일자	2006. 3. 30	2006. 6. 30	2006. 9. 30	2006. 12. 30
발행부수	2000부	2500부	2500부	2500부
논문접수기간	수시접수	좌동	좌동	좌동
발행 논문수	20편(원저20)	23편(원저23)	20편(원저20)	24편(원저24)

▣ 등재/등재후보지 현황(한의계) - 2007.1.18 기준

등재후보선정시기	분야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비고
2000년하반기	의약학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대한동의생리병리학회	2003년 등재
2002년상반기	의약학	대한본초학회지	대한본초학회	2005년 등재
99년하반기	의약학	대한침구학회지	대한침구학회	2002상반기 등재
2000년하반기	의약학	대한한의학회지	대한한의학회	2005년 등재
2003년상반기	의약학	대한경락경혈학회지	대한경락경혈학회	2006년 등재
2003년상반기	의약학	대한한방내과학회지	대한한방내과학회	2006년 등재
2002년상반기	의약학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대한한방부인과학회	2006년 등재
2005년	의약학	대한약침학회지	대한약침학회	등재후보
2004년상반기	의약학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등재후보선정

등재후보선정시기	분야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비고
2005년	의약학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대한한방소아과학회	등재후보선정
2005년	의약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등재후보선정
2005년	의약학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	등재후보선정
2005년	의약학	사상체질의학회지	사상체질의학회	등재후보선정
2005년	의약학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등재후보선정
2006년	의약학	대한한방방제학회지	대한한방방제학회	등재후보선정

▣ 분과별학회지

- * 2006년도 대한한방내과학회지,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학술등재후보지에서 정식등재지로 승격

▣ 2007년 학회지 발간사업

1. WPRIM 등재(23개 학회, 2개 기관)를 위한 학술지 자체 평가 보고
 - * 분과별 학회지 자체 보고 정리(2007년 1월 24일 현재 24개)
2. WPRIM 등재를 위한 한의학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구성
 - * 학술지의 자체 평가수준 향상
 - * 국내외적 한의학 학술지 위상 제고

학회 발전 10년 계획(안)

— 학술대회 관련—

송재철(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

▣ 대한한의학회지 SCI 등재

- 보다 많은 분과별학회지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선정 노력
- 대한한의학회 검색엔진인 Koreamed 참여를 위한 분과별학회지의 내용 및 질적 향상
- 추진위원회의 지속적 노력과 예산확보로 10년내 대한한의학회지의 SCI 등재

▣ 학회 회원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실질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학회 회원들의 자질 유지 및 향상
- 활발한 연구 활동 장려 및 지원
- 임상실험이 필요한 업체와 연결하여 산학협동 실험 및 연구 활동 증대

▣ 국내 세미나 활성화 방안

- 1) 전국한의학학술대회
 - 분과별학회와 시도지부간의 학술적 교류 및 긴밀한 관계 형성
 - 임상과 학술적 연구의 만남의 장소 및 객관적인 치료법에 대한 검증과 토의 자리 마련
- 2) 기획세미나
 - 국내 의료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한의학의 학술적인 토대 위에서의 대처가 필요
 - 학술적인 이론 및 근거 개발로 국민들에게 공감대 형성

▣ 국제세미나 및 학술대회 활성화 방안

- 1) 한중학술대회

- 중화중의약학회(중국)와 대한한의학회의 공동학술대회
- 학술 논문 발표 이외에도 향후 공동연구 및 상호 인력 교환

2) 한중일학술대회

- 중서의결합학회(중국), 동양침구학회(일본), 대한한의학회의 공동학술대회를 추진
- 중국과 일본 의사들과 교류를 통해 미래 의료시장에서의 한의학 위상 증진
- 동서의학의 학술적 교류 및 공동연구로 세계의학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선점

3) 각종 세계전통의학 관련 학술대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개최 노력

학회 발전 10년 계획(안)

— 학회운영 및 학술연구과제 관련—

임형호(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기획총무분야 중장기 계획

목 표

- ◆ 회원 실태를 파악
- ◆ 정회원, 준회원 학회 인준 활성화
- ◆ 학술평가를 통해 학술진흥원에 등재후보 이상 학회 수 증가도모
- ◆ 민원관련 백서 제작

기획총무 분야

- ◇ 회원실태파악
- ◇ 학회지 인준 현황
- ◇ 학진 등재 현황
- ◇ 민원관련백서 제작

회원실태파악

- ◇ 한의사협회: 10800여명
- ◇ 한의학회: 2198명
- ◇ 정회원 학회: 29개
- ◇ 준회원 학회: 14개

정회원학회 현황

대한약침학회	3360	대한본초학회	284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90
대한침구학회	700	대한동의생리학회	281	한방척추관절학회	155
척추신경추나의학회	573	대한중풍학회	280	대한한방안아비인후피부과학회	152
대한한방비만학회	530	대한의료기공학회	269	경락진단학회	151
대한한방부인과학회	510	대한예방의학회	255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145
대한한방내과학회	373	한방재활의학과학회	253	대한경락경혈학회	106
대한한의학방제학회	372	대한스포츠한의학회	249	대한암한의학회	106
사상체질의학회	334	동의병리학회	229	한국의사학회	56
대한형상의학회	316	대한한의진단학회	222	한외치제형학회	52
대한한방소아과학회	308	대한한방제물의학회	211		

준회원학회 현황

한의학자연요법학회	827	증류학회	173	대한파동생명장학회	10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450	대한향노화학회	142	소문학회	
대한침대학회	211	대한한의동통학회	61	한방병의원경영학회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	205	대한한의정보학회	53	대한한방통전약물학회	
대한한방알레르기및면역학회	200	맥진학회	52		

학회지 인준현황

2004년 정회원학회 30개
준회원학회 10개



2005년 정회원학회 30개
준회원학회 13개



2006년 정회원학회 29개
준회원학회 14개

학진 등재 현황

❖ 등재지: 7개

❖ 등재후보지: 8개

등재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대한본초학회지, 대한침구학회지
대한한의학회지, 대한경락경열학회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등재후보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대한약침학회지,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분과별학회 현황 평가기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학회운영 참여도	회원관리
학회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의 유무 예산집행 결과보고	학회사무실의 유무 임원구성 전국성 여부 정기적 임원회의 개최 유무	분과별학회 자체 회비 납부 회원수 대한한학회 회비 납부 회원수 회원을 위한 연수강좌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행 여부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여부	학회운영 참여도	
정기총회 개최 유무 및 회원 참여정도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여부 및 회원참여 정도 (국내, 국제 포함) 웰레진담회 및 강좌등의 개최여부 및 회원참여 정도 타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 개최 유무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분과별학회 자체규정을 두고 있는가? 회원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을시 규정에 의해 징계를 취하는가?	

분과별학회 학술지 평가기준

객관적 평가

- 1.심사절차 2.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 3.편집위원의 연구실적 4.논문 게재율
- 5.학술지 배포의 국제성 6.등재하고 있는 색인이나 DB의 명성/CYBER 출판여부
- 7.ISSN 부여 8.정시 발행 9.년간 학술지 발간횟수 10.학술지 역사
- 11.논문 투고자의 전국성 및 국제성 12.기관규모 [회원수 또는 전임연구원수]

주관적 평가

- 1.게재 논문의 질 및 독창성
- 2.학술지의 전문성
- 3.인쇄의 질 및 지면배정의 효율성
- 4.논문초록의 질

- 1.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의 구체성과 엄정성
- 2.편집위원 선정기준과 절차의 구체성 및 엄정성
- 3.편집위원의 전문성 및 대외활동
- 4.수정제외의 상세성과 구체성
- 5.투고 규정의 상세함과 구체성

민원관련백서 제작

- ◇ 2004년 민원백서 분석
 - ◆ 침구관련 사례 (13건)
 - ◆ 기흉, 훈침, 뇌경색 등
 - ◆ 한약관련 사례 (4건)
 - ◆ 급성감염, 심근경색 등
 - ◆ 의학적 자문관련사례 (30건)
 - ◆ 일회용침및 부항시술수 안정성여부 등
 - ◆ 한방의료행위여부 사례 (7건)
 - ◆ 양방 병 - 의원 전자침시술관련 행위여부 등
 - ◆ 처치후 타병증 관련사례 (6건)
 - ◆ 추나요법후 추간판 탈출증 등

- ◇ 2005년 민원백서 분석
 - ◆ 협조요청 (7건)
 - ◆ 한의사의 CT사용 관련 의견요청 등
 - ◆ 질의 (10건)
 - ◆ 중요 경혈침술(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행위정의 관련 질의 등
 - ◆ 의료자문 및 심의요청 (32건)
 - ◆ 핫팩처치 후 화상에 대하여 등
 - ◆ 사실조회 (13건)
 - ◆ 중풍환자의 전반적인 치료에 대하여 등
 - ◆ 한방의료행위여부 (4건)
 - ◆ 무자격 침술행위와 관련된 심의요청 등

◇ 2006년 민원백서 분석

- ◆ 협조요청 (2건)
 - ◆ 수지침 시술행위와 관련한 자료 협조 요청 등
- ◆ 질의 (10건)
 - ◆ 한약과 생약의 구분과 차이에 대한 정의 질의 등
- ◆ 의료자문 및 심의요청 (35건)
 - ◆ 감비탕 복용후 급격한 황달이 발생한 건 등
- ◆ 사실조회 (11건)
 - ◆ 오가피 엑기스에 대한 사실조회 등
- ◆ 한방의료행위여부 (5건)
 - ◆ 중탕집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한 건 등

학회 발전 10년 계획(안)

- 국제학술교류 관련-

김용석(대한한의학회 국제교류이사)

국제교류분야 중장기 계획

목 표

- 중국 주도의 세계 전통의학 추세
- 전통의학 분야에서 한국의 대표성
-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 확산
- 세계시장에서 한의학 중심의 전통의학 구축

국제교류 분야

- 학술 교류
 - 학회활동
 - 학회지
- 교육 교류
- 정책 교류
- WHO연계 사업

학술 교류 (I)

- 국외 전통의학 분야
 - 중국: WFCMS, WFAS, 한중학술대회, 중서의결합학회
 - 일본: 전일본침구학회, 일본 동양의학회
 - 미국:
 - ICMART:
 - 호주, 홍콩, 마카오, 대만, 인도네시아
 - 기타
- 국내주도 국제학회: ICOM
- 전통의학분야 network 구축
 - 각국에서 대표성이 있는 학회 partner 선정

학술 교류 (II)

- 분과 학회 별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서양의학 분야
 - 전통의학분야는 한국의 한의학이 주도
 - 예, 불임학회, 통증학회, 신경학회 등
- SCI급 학술지
 - 전통의학 학술지 network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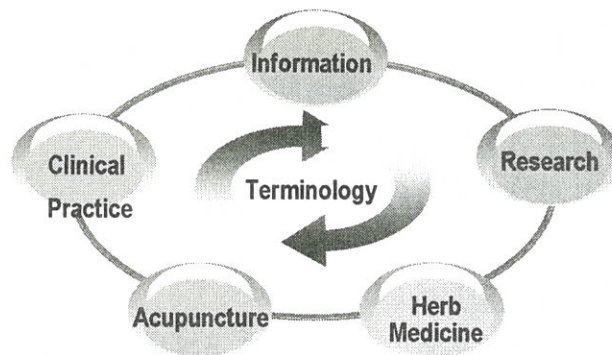
교육 교류

- 한국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
 - 국내, 외: 국제 연수강사 양성
 - 의학교육(국외)에 한국 한의학 교육
 - 진료 연수 프로그램 개발
- 해외에 한국 한의학 교육시설 구축
 - 중국 중심의 전통 의학을 한국 중심으로

정책 교류

- 정부관계자 포럼을 통한 정책 교류
 - 국가간 의료체계 상호인식
 - 국가간 분쟁 방지
 - 전통의학 제도가 없는 국가에 한의학 제도 소개
- 개도국의 보건의료체계에 한국 한의학 시스템 구축

WHO 연계 사업



- 한국 한의학 주도의 사업 구축
- 전통의학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축

학회 발전 10년 계획(안)

- 전문의 고시관련 -

전찬용(대한한의학회 고시이사)

▣ 7차 전문의시험 경과보고

-191 중 187 합격(소1, 안1, 침2)

▣ 제도개선 TFT경과보고

-제도이사, 보험이사 참여

-결론의 의미가 없음

▣ 특례규정의 종결고지

-2006.12.31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 제도 소멸,

-임상8개과 전임교수의 특례 소멸

▣ 향후 계획

1)교육과 검증의 분리

-한의학회와 8개분과에 “수련교육이사” 신설 권유

-수련이사가 중앙수련심사위원회 참여

-고시이사가 전문의자격시험위원회 참여

2)전공의 교육지침(진료편람) 발간에 동참

-한의학교육평가원 작업으로, 한의학회와 8개분과에서 작업추진중

학회 발전 10년 계획(안)

— 의료제도 관련—

한창호(대한한의학회 제도이사)

대한한의학회 제도발전 10년 계획안

대한한의학회 제도이사
한 창 호

10대 제도 개혁 과제

- 한의학, 한의약 및 한방의료관련 포괄적 기본법 제정(예, 보건의료기본법)
- 한양방 상호발전 및 관계정상화를 위한 법령제정
- 한의사제도 개선
- 한의사 교육제도 개선(학제개편, 국립대설립 등)
- 한의약정국 확대 설치
-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예, 서비스평가, 공급체계, 수가체계, 전달체계,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
- 국립한의학연구원 설립(한국한의학연구원 확대 개편)
- 한의약 안정성관리 기구 설치
- 한의학관련 국제표준 마련
- 한방산업의 정의, 분류기준 제정

한의사제도

- 한의사의 의료기사지휘권 및 검사권 확보
- 한방건강보험제도의 수가체계 정비(행위별수가 체계 개선)
- 한양방협진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발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 WYO, FTA DDA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

한의학

- 변증(한의진단), 경락경혈, 한방치료용구 표준화 관리 기준 마련
- 한의학 기술분류 관리제도 마련
- 한의진료지침 기준 마련
- 한의약관련 정보(연구, 인력, 산업, 문헌정보 및 학술정보) 체계적 통합관리체계 확립
- 한의학 국제협력센터 설립
- 한의학 국제인력개발센터 설립

한의학

- 한약품질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
- 한약재 규격화, 표준화, 안전성 확보제도 확립
- 한약제제 허가기준 및 임상시험기준 제도 마련
- 한약전발간(한약 및 한약처방 표준화, 규격화)
- 한약재 관리기준, 한약제제 품질기준, 한약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기준 마련
- 한약 안전성 및 유효성(독성 및 효능) 평가기준 마련
- 한방신약, 한방건강기능식품, 한방화장품 등 효력(안전성, 유효성) 평가기준 마련
- 한방신약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특허기준 마련

한의학 교육 및 수련

- 한의학 교육제도 개선
-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인정 평가기준 마련
- 한의사전문의 수련제도 확대
- 한방병원 신임평가제도 도입
-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 한의사보수교육 제도 개선

한방임상시험

- 한방임상시험관리 기준 마련
-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 개정
- 약사법 개정(임상시험실시기준)
- 한약제제 및 천연물을 통한 신약개발에 대한 제도 개선(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개정)
- 한약, 한방의료기기, 한방치료용구 표준화 및 효능, 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
- 국립한의학임상시험센터 건립
- 한방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한방산업

- 한방산업의 정의, 분류기준 제정
- 한의학관련 국제표준 마련
- 첨단 산업과의 협력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 한의학관련 지적재산권 관리기준 마련

학회 발전 10년 계획(안)

- 의료정보 관련 -

이승일(대한한의학회 정보통신이사)

1. 학술정보화 현황

1) 학회 회무전산화 및 자동화

현재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www.koms.or.kr)를 통한 평점(1점)관리 및 제한적인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더욱 확장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분과학회 중에서는 대한한방비만학회(www.obesity.or.kr)를 시범학회로 선정하여 연회비, 세미나 참가비 등이 전자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연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회원등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에는 이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분과학회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2)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통한 학술정보서비스

2005년 11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맺은 학술교류협정을 바탕으로 논문투고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향후 학술정보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학회 학술정보화 지원사업에 협조하여 분과학회가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졌다.

2. 정보화 사업 추진 방향

1)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

- 학회 홈페이지에서 킬러 콘텐츠 및 킬러 어플리케이션 강화
(예: 한방지식검색, e러닝, 온라인 쇼핑, 공동구매 등)
- 뉴스레터 및 웹진을 통한 뉴스 기능 보강 및 학회활동 홍보 강화
-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기획 실시

2) 정보화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

- 기본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 책정
- 한의계 관련기업을 중심으로한 스폰서 유치
- 외부기업을 대상으로한 한의계 투자 유치 (금융, 정보화, 컨설팅 등)

3) 한의학 용어표준화를 통한 한방산업 발전계기 마련

- 한의학용어표준화를 통하여 한방의료기기, 한방정보서비스 및 여러 분야 한방 의료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

4) 관련 기관·단체와의 사업 연계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의학지식정보화종합계획 (2006년~2010년)
- 대한한 의사협회 : 한의계 포털사이트 기획 및 런칭
- 대한의학회,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보건복지부, 국민보건복지 관련 단체(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5) 정보화를 통한 국제학술교류 확산

-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할 주체를 확립하여 활성화
- 영문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동양의학학술대회, 한중학술대회 및 WFAS 등 한의학관련 국제학술대회와 링크
- 차후 중문, 일문 홈페이지 구축으로 폭넓은 국제교류의 기반을 마련

우리나라 학술지 발전을 위한 생각

서 정 욱(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수,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장)

우리나라 학술지 발전을 위한 생각

서정욱(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수,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장)

1. 의학 학술지의 저자와 독자

의학학술지는 논문을 통하여 저자와 독자를 학술적으로 연결하고 저자와 독자의 학술, 연구 및 진료활동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자는 구독료를 부담하고, 발표된 의학정보를 학술, 연구 및 진료활동에 이용하며, 저자의 활동을 재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의학학술지의 저자와 독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이다.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들 학술지가 논문을 투고한 저자들을 위해 발행되고 저자들의 의견이 훨씬 중시되며, 반면에 독자의 존재는 크게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 정보의 공급에 비해 이들 논문을 신고자하는 학술지의 수가 너무 많아서, 편집인들은 논문을 구걸하고 있으며 학술지는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독자는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를 외면하고 있다.

학술지 발행 및 구독에서 독자는 대중 잡지와 사뭇 다른 면이 있다. 대중 잡지에서는 광고를 봐주고 발행 부수를 올려주는 것으로 독자의 존재를 알린다. 그러나 학술지의 경우는 단순히 읽어주는 것으로, 또는 구독료를 내 주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 학술지에서의 독자는 또 다른 논문의 저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논문을 통해서 또 다른 학술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용”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용이라는 행위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학술 논문의 내용이 검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옳은 관찰과 해석도 있지만 학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주관에 근거하여 다른 견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단 인용되었다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인용지수는 그 학술지에 그 해에 수록된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학술지의 독자층이 어떤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우리 학회에 소속된 300명의 학자가 독자충인 경우도 있고 우리 학회 뿐 아니라 다른 학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독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계에 흩어진 많은 학자들에게 관심을 끄는 학술지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우리 학회 회원들조차 읽어주지 않는 수도 있다. 내 논문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주장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 지표는 인용 지수로 나타난다.

2. 학술지의 편집인과 발행인

학술지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투고된 논문을 인쇄하거나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투고한 원고를 그대로 출판하기도 하지만 좋은 작품을 선별하고 다듬기도 하며 형식을 일정하게 맞추는 작업도 한다. 차례를 보기 좋게 만들고 필요한 경우 논문에 대한 편집인의 의견을 달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학술지를 처음 만드는 사람의 준비가 있었고, 심사하고 인쇄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일, 그리고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색인에 등록되도록 하는 일 그리고 학술지를 보급하고 판매하는 일 등이다.

저자들이 제출한 논문을 제출한 그대로 순서도 없이 복사하여 제본하여 나눠 가질 수도 있다. 특히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필사본의 형태로 보급되었다. 동인지라는 것은 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정하고 동인으로 선발되면 서로의 작품을 믿고 모아서 출판하는 형식이다. 학급 문집도 그런 종류이다. 동인지의 경우 저자와 독자는 동인 회원이고 회원들의 지명도에 따라 책이 판매될 수 있다.

학술지에서 편집인의 역할은 저자의 논문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저자에게 수정을 권고하고 좋은 논문으로 다듬어지도록 하여 수록된 논문들이 독자에게 환영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수록된 논문의 품질과 가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독자에게 좋은 제품이라는 편집인의 추천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발행인과 편집인과의 관계는 신문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편집인은 고집스럽게 내용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고집하지만 발행인은 대중성을 중요시하고 독자의 반응을 관심있게 본다. 때로는 편집인과 발행인의 다른 시각이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학술지는 편집위원장이 전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편집인에 대한 혼돈은 없다. 그렇지만 출판사와 발행인을 혼돈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에서는 전문출판사가 발행인인 경우가 적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인쇄를 담당하는 출판사는 발행인이 아니다. 발행인은 출판을 재무적으로 그리고 출판에 대한 법적 권한과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전문학술지의 발행인은 학회 회장이고 대학 출판물은

대학 기관장이 발행인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발행인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발행인이 발행인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3. 편집인과 심사

편집인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면 논문 투고자, 논문 심사자, 발행인 그리고 독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학술지발행의 핵심이다. 이러한 역할을 단순한 업무 중개역으로만 할 수도 있고, 독자와 투고자의 연구의욕을 재창조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문법수정인 (passive grammar corrector)이나, 반응적인 검열관(reactive censor)을 탈피하고, 좀더 진보적인 연구촉진자(active facilitator)가 되기 위하여, 편집인은 능력(aptitude), 교육(training), 기술(skill), 경험(experience), 책임감(responsibility)의 5 가지를 겸비하여야 한다.

편집인은 논문심사자를 선정하고 그 업무를 감독한다. 심사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저자와 독자를 위한 심사가 되도록 하고, 심사자를 교육하며, 심사자의 동기를 유발하여야 한다. 편집인의 입장에서 심사자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때로는 대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다섯 부류의 심사위원으로 나눌 수 있다. (1) 학문적으로는 정확하지만 지나치게 까다롭게 심의하는 젊은 심사위원, (2) 웬만하면 게재허가를 주는 너그러운 심사위원, (3) 사소한 타자오류와 철자법등을 주로 고치는 위원, (4) 심사의뢰 후 세월이 가도록 아무 연락도 주지 않는 세칭 유명한 인사들, (5) 적절히 조화된 심사를 해주는 위원.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심사위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믿을 만한 심사위원, 새로운 심사위원을 발굴해 내는 것이 편집인의 역할 중의 하나이다.

편집인은 논문투고자와 발행인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견제는 독자로부터 온다. 이러한 견제는 공정한 심사와 편집인의 노력의 원동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저자만이 이러한 견제역할을 한다. 심사를 통하여 논문의 질이 개선되기 보다는 빨리 별책이 인쇄되기를 부탁하는 견제가 전부이다. 전통적으로 저자는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심사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저자가 많다. 저자가 해당 단체의 지도자이고 권위자인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심해진다.

편집인과 인쇄인이 구분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편집인은 온갖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편집인의 경영능력 미숙도 큰 문제이나 편집 보조인의 육성이 시급하다. 전문적인 학술지 편집보조인이 없고 출판업계가 영세한 현 상황에서, 편집인은 원고 구결에서부터 학술지 발송까지 관여하고 철자법수정과 온갖 단순사무에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들은 전문편집인이라기 보다는 학술지 발행의

해결사 역할에 불과하다.

논문 편집 실무는 흔히 젊은 고급인력의 희생으로 해결하려고, 기간을 적당히 때우고 나면 된다는 책임편집인의 그릇된 인식은, 전문적인 편집 보조인에 대한 투자를 봉쇄하고 있다. 학술지 발행비용의 90% 이상이 인쇄비와 발송비등이고, 편집사무는 고등학생이나 젊은 교수를 시키는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 학술지와 그 발행인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4. 학술지 색인

일반 잡지는 한권을 책을 낸 손에 줍으로부터 독서가 시작된다. 정보 검색을 해서 보는 일 보다는 책을 뒤적거리고 차례를 보며 관심을 끄는 글을 읽는다. 학술지의 경우도 자기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나, 도서관에 진열된 학술지를 읽을 때는 일반 잡지처럼 읽는다. 그렇지만 인쇄된 학술지를 한권의 책으로 보기보다는 각 논문을 한 권으로 보고 각 논문을 개별적으로 검색하고 읽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종이로 인쇄된 Index Medicus, Korean Index Medicus의 발간은 학술지가 일반 잡지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발명품이었다. 종이로 발행되던 Index Medicus가 CD-rom 시대를 거쳐 on-line으로 제공되면서 학술 논문 발행에 혁명이 일어났다. 검색을 위한 DB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학술지 발행의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논문색인은 중요해졌다.

도서관은 오래전부터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을 만들었다. 그 중 성공적인 것이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Medline이지만 학술 논문 색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도서관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을 색인하기 때문에 책이 도착하면 그 책의 제목과 저자, 소속, 초록 등을 일일이 타자하여 색인을 만들었다. 아직도 일부 도서관에서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 논문의 내용을 타자하여 자신만의 DB를 만들기도 한다.

러나 컴퓨터의 보급으로 출판 자료가 편리하게 공유되고 전달될 수 있게 되면서 프린트된 종이 학술지를 보고 다시 타자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출판에 사용된 파일을 받아서 색인을 만든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5. 저작권과 발행인

출판물의 지적 권한을 저작권 또는 저자권이라 부른다. 상표권이나 특허권은 등록을 한 이후에 권한이 인정되는 반면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이 저

작을 한 순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저자가 논문을 제출해서 편집인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저자가 저작권을 가진다. 편집인이 심사를 마치고 출판물을 하기로 하면서 저자와 발행인간의 출판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저작권 이양동의이다. 저작권을 가진 저자로서 논문이라는 상품의 주인이 자신을 포함한 저자들이며 그 저작물에 대한 출판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저자로서의 권한을 모두 넘기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출판하는 권한을 주로 말한다. 저작물에 특허사항이 포함되었다고 특허권이 저작권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저자는 자신의 강의나 특허 출원 등에 자신의 저작물에 포함된 자료를 이용할 권한을 유지한다. 그러나 다른 출판물에 사용할 때는 원 출판물의 발행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기업의 상표권이나 특허권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전파하려는 학자의 기본 욕구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논문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읽고 인용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학술지 논문 저작권의 특이한 부분이다.

종이학술지를 받은 도서관에서 출판된 학술지 논문의 초록을 타자하여 자체적으로 DB를 만들었다면 해당 초록의 관내 사용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개된 서지정보를 가공하는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문헌정보학자의 견해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출판사로서 해당 초록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갈등은 색인 DB 구축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논문 전문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논문 색인 DB를 구축하고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Pubmed를 통하여 무료로 논문 색인을 보고 있지만 그 전에는 유료로 검색하였고 지금도 유료로 구독해야하는 초록 DB가 적지 않다.

6.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우리나라에서 1996년 대한의학학술지협의회가 발족되고 이어서 학술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선정된 학술지 논문에 대하여 KoreaMed 라는 색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학술지 편집인들이 모여 편집인의 역할과 논문 심사 방법을 토론하고 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술지 평가를 하고 국내 색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술지에 대한 평가 기준도 없었고 저자의 목소리가 크던 시절에 편집인들이 제

대로 역할을 해야 학술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학술지 평가 기준을 만들고 논문 투고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침 Vancouver 양식이라는 것이 제정되어 학술지 논문 편집의 표준 지침이 되었다.

처음에는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이 편집을 맡은 학술지를 서로 심사하는 활동으로 시작하였다. 학술지의 상호 심사를 한 셈이다. 논문의 저자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논문을 평가하고 개선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논문 상호심사(peer review)인 것처럼 학술지 상호 심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서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었다.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른 분야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 하기도 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편집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평가에 통과된 학술지에게 Koreamed 라는 색인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고 참여를 위한 당근이 되었다. Koreamed 시스템은 한림의대 허선 교수 개인의 작품이고 개인의 희생과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술지 평가와 교육 프로그램들도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편집인들에게 순수한 참여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이춘실 교수의 참여는 전문 문헌정보 방법론이 적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술지 색인과 참고 문헌 인용지수에 이르기 까지 검색 방법을 보강하였고 DB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지휘하였다.

7. Koreamed 와 WPRIM

세계보건기구에서 바라본 KoreaMed 와 Komci는 국제적인 모범사례이다. KoreaMed 이용자의 2/3가 외국인이라는 것은 그 가치와 필요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한국의 KoreaMed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두가지이다. Medline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의 색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과 191개 UN 회원국 모두가 국가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보다는 적절한 지역 규모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를 Gateway 에서와 같이 통합검색한다면 진정한 데이터베이스 통합 검색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WHO 서태평양지역기구는 다른 지역기구보다 늦게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5년 5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각 국가지정 의학도서관(focal point library) 대표자 회의를 열고 WHO 본부, 동남아시아지역기구, 서태평양지역기구가 함께 모여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월에는 서정욱, 조수현, 허선, 김수영, 이춘

실 교수가 마닐라 WHO 서태평양지역기구를 방문하여 업무 협의를 하였다. 2006년 3월에는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자문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준비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서태평양지역기구의 전통의학 분야 지역 책임자인 최승훈 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회의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학술지 단위로 문헌 색인을 하고 학술지 선정 기준은 상호심사가 이루어지는 잡지로 하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정한다.
- 학술지 논문을 색인하는 Index Medicus 뿐 아니라 학술지 평가 사업을 병행하여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의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Regional Index Medicus에 우선적으로 올려서 Index Medicus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 한국의 KoreaMed와 Komci 프로그램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KAMJE)로부터 제공받아 WPRIM을 구축하고 컴퓨터서버는 마닐라 서태평양지역기구의 전산실 장비를 이용한다.
- 서태평양지역기구와 필리핀정부에서 각 1명을 2006년 6월 한국에 파견하여 KoreaMed 및 Komci 운영 기술을 전수받는다.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WHO 서태평양지역은 한국, 일본,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나라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몽골리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가 그리고 서태평양의 작은 나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볼 때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의 자료를 우선 통합하여 검색되도록 한다면 매우 의미있는 Regional Index Medicus를 조기에 출범시킬 수가 있다. 더구나 한국의 KoreaMed를 이지역 Index Medicus의 토대로 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2006년 12월 10-12일 베이징에서 WPRIM회의가 있었다. WHO가 주최하여 각국가 문헌정보 전문가들이 모이게 되며 중국의 의학회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Asian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APAME)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8. 종합학술지, 전문학술지, 세부전문학술지

의학 학술지를 기능별로 보면 전문의학학술지 (specialist journal)와 종합 의학 학술지(general medical journal)로 나눌수 있다. 종합 의학학술지는 대학학술지

나 대한의사협회지 그리고 소위 상업지가 여기에 속한다. 독자의 구성과 발행목적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기는 하나 자칫하면 특성없는 잡동사니를 모은 학술지가 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전문의학학술지는 고유의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술대회 개최 등의 정보교환활동을 병행하여 학문적 특성을 살리기가 쉽다. 대한병리학회지 등이 전문의학학술지이다.

전문의학학술지는 전문 학술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술지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들이 투고한 논문을 소속 회원들이 심사하고, 독자 또한 소속 회원들인 학술지이다. 우리나라 전문 학술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폐쇄적인 운영이라 생각된다. 제한된 소속 학회 회원에게만 무료로 배부되는 이 학술지들은 관련된 다른 분야에서는 고물상에 팔려가는 신문지와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전문과목의 다양화로 세부전문학회지로 분화하면서 학회가 소규모 집단이 되고 폐쇄적 운영과 학술지과잉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9. 결론

국제화와 개방화가 가장 중요하다. 각 학술지가 창간된 후 지금까지 의학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았으나, 그동안 각종 전문 학술지가 많이 출판되어서 연구논문을 발표할 학술지가 충분하며, 각 기관 발행 학술지가 출판되어 게재할 원고가 부족해지고 이중 게재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학술지 발행을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투고의 개방은 물론이고 색인 DB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모범적인 심사관리가 중요하다. 심사업무를 항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편집사무를 개선한다. 이러한 업무개선을 바탕으로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읽히는 학술지가 되어야 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창의적인 논문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문의학학술지와 경쟁하기보다는 다양한 독자에 맞는 다양한 원고를 신도록 노력한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기획논문과 청탁논문을 준비하여 신는다. 2차 정보 매체의 기능을 수행하여 서울의대학술지를 읽음으로써 우리나라 대학학술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독자의 편지와 편집자 견해를 실어 독자의 반응을 다른 독자와 나눌수 있게 한다. 깔끔한 조판과 인쇄로 읽기 좋은 학술지를 만들고 발송체계 정비 및 과년도 공급으로 독자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국제화 추진사례

강대인(대한약침학회 회장)


An Overview of CAM/TM Research at NCCAM/NIH

November 20, 2006




Presentation Overview


- What is CAM in the United States?
- NCCAM – History and Mission
- Selected Research Program Highlights
- Major NIH Partners



What is “CAM” in the U.S.?




- Medical and health care practices outside of the realm of mainstream U.S. biomedicine
- **Complementary:** together with “conventional” practices
- **Alternative:** in place of conventional practices
- Derived from many different systems and traditions, ancient and modern




CAM Use in the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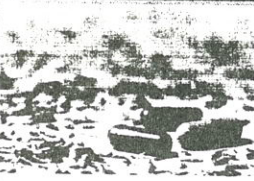
- 36% of adults used CAM in the past year (excludes prayer)
- Women > men
- More common among those with higher education, illness, or pain
- Major uses
 - 19% herbal/natural products
 - 12% breath practices
 - 8% meditation
 - 8% chiropractic
 - 5% yoga
 - 5% massage
 - 4% diet-based therapies



Barnes et al., CDC ADR, 2004




Ten Most Commonly Used Natural Products




- Echinacea (40%)
- Ginseng (24%)
- Ginkgo biloba (21%)
- Garlic supplements (20%)
- Glucosamine (15%)
- St. John's wort (12%)
- Peppermint (12%)
- Fish oils/Omega fatty acids (12%)
- Ginger supplements (10%)
- Soy supplements (9%)

Barnes et al., CDC ADR, 2004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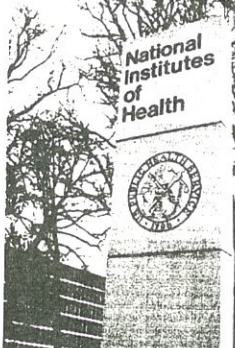
NIH

THE NATION'S MEDICAL RESEARCH AGENCY

NIH Mission: "Uncover new knowledge that will lead to better health for everyone"

Primary approaches include:

- Support of *extramural* research at academic and other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 ~85% of total NIH research budget: grants and contracts
- Support of *intramural* research at laboratories within the NIH
 - ~15% of total NIH research budget
- Training of research investigators
- Dissemination of health research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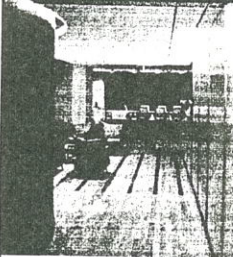
Fiscal 2006 budget:
\$28.6 billion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ging	Alcohol Abuse & Alcoholism	Allergy & Infectious Diseases	Arthritis, Musculoskeletal & Skin Diseases	Cancer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Deafness & Other Communication Disorders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	Diabetes, Digestive, & Kidney Diseases	Drug Abuse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Eye
General Medical Sciences	Heart, Lung, & Blood	Human Genome	Mental Health	Neurological Disorders & Stroke	Nursing Research
Biomedical Imaging & Bioengineering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Fogarty International Center	Research Resource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Minority Health & Health Disparities
	Clinical Center	Information Technology	Scientific Review		

NCCAM

CAM Research at the NIH



1980's - 1990's

- Modest & uncoordinated investments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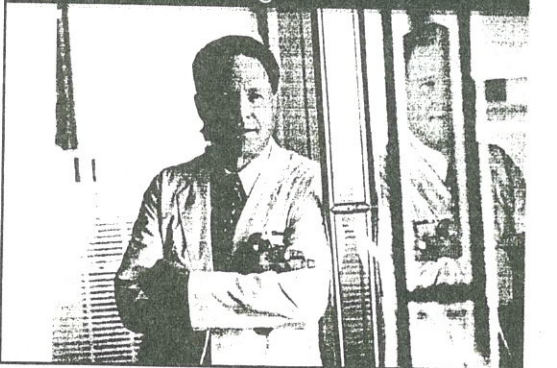
- 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 formed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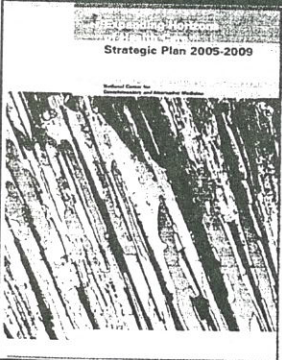
-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established; also Office of Cance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established by NCI

NCCAM

Stephen E. Straus, M.D.
NCCAM's Founding Director




NCCAM: Our Mission



We are dedicated to exploring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healing practices in the context of rigorous science, training CAM researchers, and disseminating authoritative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professional communities

NCCAM

NCCAM Strategy for Building a Robust Program of CAM Research



- Foster partnerships between:
 - Established biomedical researchers with a track record of scientific accomplishment, an interest in CAM/TM, and success in competing for NIH grant funding, and
 - Experienced CAM/TM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who bring an understanding of the practice of CAM and the needs, questions, and challenges facing the field
- Together they compete for NIH gr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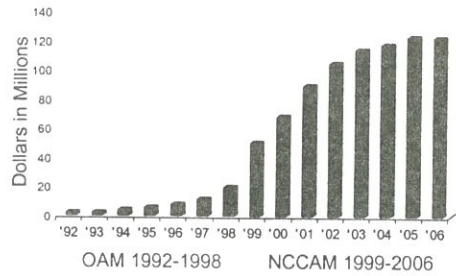
NCCAM

Investigator-Initiated Research Gr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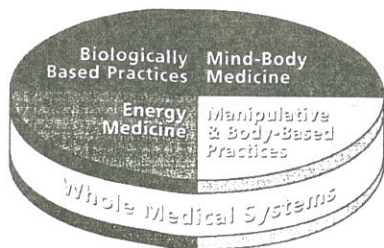
- Like the rest of NIH, most of NCCAM research is supported by investigator-initiated grants
 - Hypothesis-driven research
 - Most, but not all is "unsolicited"
 - All is peer-reviewed
 - Open and competitive system
 - Current success rate ~17%
- NCCAM currently supports approximately 300 ongoing research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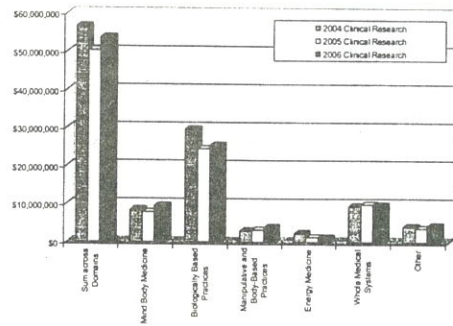
NCCAM's Appropriations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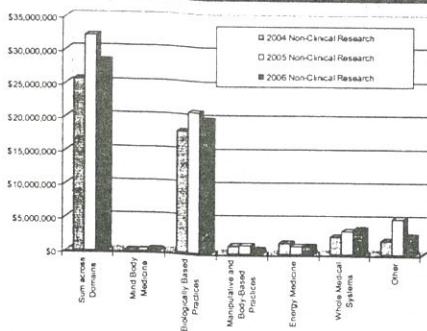
The CAM Domains & Whole Medical Systems



FY 04 Through FY06 Clinical Research By Strategic Area Dom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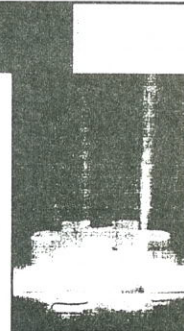


FY 04 Through FY06 Non-Clinical Research By Strategic Area Domain



Measures of success

- Built a Center that is responsive to its mission and mindful of its resources
- Fully integrated into NIH science and leadership
- Gained the respect of CAM and non-CAM communities
- Created a CAM research and training collective
- Funded nearly 1200 projects at 260 institutions
- Over 1200 scientific publications
- Informing public policy, patient choice, and clinical practice



Ongoing Phase III Trials

Therapy	Condition	Sponsor	Co-Sponsors
Acupuncture	Low Back Pain	NCCAM	
Acupuncture	Osteoarthritis/Knee	NCCAM	
EDTA Chelation Therapy	Coronary Artery Disease	NCCAM	NHLBI
Ginkgo Biloba	Dementia	NCCAM	NIA/NHLBI/NINDS
Glucosamine-Chondroitin	Osteoarthritis/Knee	NCCAM	NIAMS/ODS
Phytoestrogens	Atherosclerosis	NCCAM	ODS/ORWH
SAM-e	Major Depression	NCCAM	
SAM-e	Treatment-Resistant Depression	NCCAM	
Vegetable & Herb Mix	Lung Cancer	NCCAM	
St. John's Wort	Minor Depression	NIMH	NCCAM/ODS
Vitamin E-Selenium	Prostate Cancer	NCI	NCCAM

Recent New Centers of Excellence



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

- Arthritis and TCM
University of Maryland
- Chinese Herbal Therapy
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
- Mechanisms Underlying
Millimeter Wave Therapy
Temp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ew Botanical Centers in 2005



- Age-Related Diseases: Purdue University
- Dietary Supplements for Women's Health: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 Botanicals and Metabolic Syndrome: Louisiana State University
- Botanical Immunomodulators: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 Center for Botanical Lipids: Wake Forest and Harvard Universities



International Research Goals

- Advance understanding of traditional/indigenous medical systems through collaborative studies
-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irreplaceable and valuable traditional/indigenous CAM/TM knowledge and resources
- Enhance understanding of integration of CAM/TM with "conventional" medical interventions



Selected NCCAM International Research Activities

- **International Centers for Research on CAM (ICRCs)**
 - Collaboration between U.S. and non-U.S. scientists
 - Phase I – Planning Grants, 2003-2005
 - Phase II – Four awarded: 2 by NCCAM, 2 by NCI
- **Investigator-initiated research grants**
- **FIC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 Awards (FIRCA)**
- **WHO Collaborating Center for TM**



NCCAM International Centers

Functional Bowel Disorders in Chinese Medicine
 University of Maryland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Australia

Indigenous Phytotherapy Studies: HIV/AIDS, Secondary Infections, & Immune Modulat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University of the Western Cape, South Africa
 University of KwaZulu-Natal
 University of Cape Town
 South African Medical Research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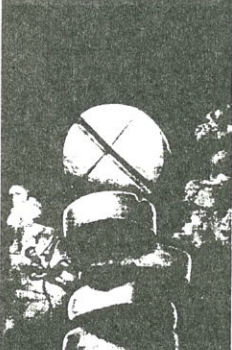
Recent Conferences and Workshops



- Biology of Manual Therapies
- Integrating Psychology, Neuroscience and Physiological Mechanisms: A New Framework Applied to Asthma and Atherosclerosis
- Neurobiological Correlates of Acupuncture
- Biofield Energy Medicine
- Ethnomedicine

NC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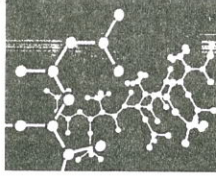
Our First 6 Years: Challenges & Lessons Learned



- Creating a collaborative, multidisciplinary research effort
- Flawed assumptions
 - Optimal "dose" is known from history or common usage
 - Standards of quality and consistency for products or practices
 - Safety
- Complex methodology issues
 - Individualized interventions
 - Multimodality interventions

NCAM

Current Research Priorities



- Mechanisms of Action underlying CAM approaches
- Exploratory Clinical Studies and Phase I and II Clinical Trials
 - Optimal "dosing"
 - Preliminary data on safety and efficacy
 - Active ingredients, pharmacology, bioavailability
 - Exploratory clinical studies (e.g., case control, observational, qualitative and experimental studies) to elucidate mechanisms and test models

NCAM

Areas of Special Interest

- Anxiety and depression
- Cardiovascular diseases
- Ethnomedicine
- Immunity
- Inflammatory bowel disease
- Insomnia
- Chronic liver diseases
- Obesity/metabolic syndrome/diabetes
- Respiratory diseases


NCAM

Areas Subject to a Short "Pause" in New Funding

- Clinical studies of placebo
- Clinical trials of:
 - *Ginkgo biloba* for neurodegenerative diseases
 - Saw palmetto & African plum (*Pygeum*) for BPH
 - Massage therapy for low back pain
 - Acupuncture for osteoarthritis of the knee
 - Low-carbohydrate diets for weight loss
 - Silymarin for chronic liver diseases
- Basic & clinical trials of soy protein isolates
- Surveys and secondary data analyses of CAM use

NCAM

Focus on Research Quality




- Policy and guidance on biologically active agents used in CAM and placebo materials
- Phase I Resource Center
- Virtual Analytic Resource Center
- Product Quality Working Group

NCAM

Training of Researchers: Needs

- Predoctoral and postdoctoral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pursuing a career in CAM research
- CAM practitioners, who wish to gain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to conduct rigorous research in their field
- Conventional medical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who wish to increas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in specific CAM research areas
- Members of populations who are underrepresented in scientific research and are interested in careers in CAM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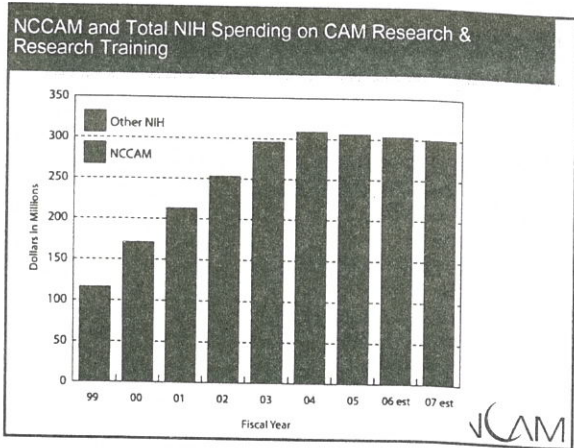
NCCAM

NCCAM Supports Training at Several Career Stages


- Undergraduate
- Predoctoral
- Postdoctoral
- Newly Independent Scientist
- Mid-Career and Senior Scientist

NCCAM does NOT support training to be a clinical practitioner

NCCAM




Expanding Outreach



- Increase awareness of NCCAM**
 - Public affairs and corporate communications
 - Media relations
- Provide credible information**
 - Website
 - Information Clearinghouse
 -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programs
 - Health information products
- Educate public/professionals**
 -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 Online CME
 - CAM on PubM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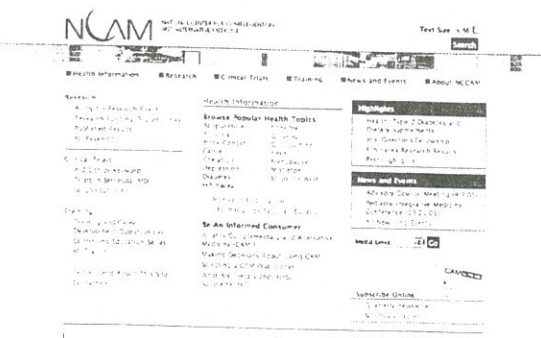
NCCAM

nccam.nih.gov



- 2.4 million visitors a year
- *Prevention* magazine's "Best Alternative Medicine" site
- Most visited pages
 - Health Information
 - Research
 - Clinical Trials
- New features
 - Herbs at a Glance
 - Live Help
 - Expanded content
- New home page design

NCCAM



NCCAM: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Herbs at a Glance: A comprehensive resource for information on herbs used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and other traditional medicine systems.

Includes sections for:

- Herbs at a Glance
- Herbs at a Glance: A Comprehensive Resource
- Herbs at a Glance: A Comprehensive Resource

NCCAM

Information Clearinghouse: Responding to Public Inquiries in FY 2005



- Responded to 13,700 inquiries by phone, email, mail, fax, Live Help
- Distributed 127,000 publications
- 3,800 copies of new strategic plan sent out
- Exhibited NCCAM materials at 18 professional and scientific meetings

NCCAM

Informing the Public

CAM at the NIH Newsletter

- NCCAM's quarterly newsletter
- 6,500 print subscribers
- 8,600 online subscribers



NCCAM Update

- Monthly eBulletin
- 5,400 subscribers

NCCAM

NCCAM's Major Partners in CAM Research



-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
 - Office of Cance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OCCAM)
- Office of Dietary Supplements (ODS)
- Several other NIH Institutes and Centers

NCCAM

National Cancer Institute

- Office of Cance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OCCAM)
- Over 300 projects
- Program Areas:
 - Research Development and Support
 - Develop scientific foundation for cancer CAM by stimulating research
 -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grant applicants
 - Practice Assessment
 - Explore the CAM practice environment and attempt to identify approaches for further investigation
 - NCI Best Case Series Program
 - Communication and Outreach
- Director: Jeffrey D. White, M.D.

NCCAM

Office of Dietary Supplements, NIH

- Established in 1994 by Congress
-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DSHEA)
 - Amended the Food, Drug & Cosmetic Act
 - Defined dietary supplements
 - Established regulatory framework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 As foods, not as drugs
 - Established rules for what a label should contain
 - Gave FDA authority to write Good Mfg. Practices
 - Called for creation of the Office of Dietary Supplements at NIH

NCCAM

Dietary Supplements: DSHEA Defin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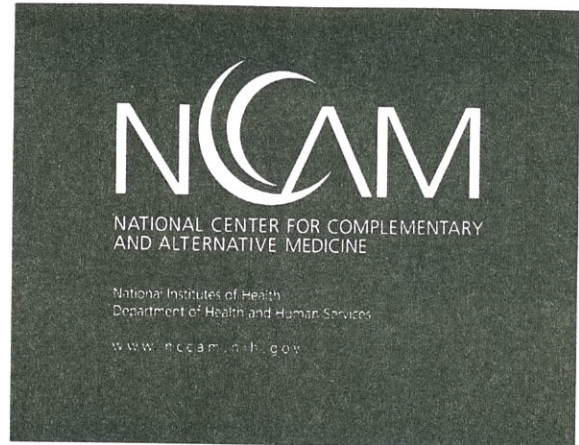
- Product intended to supplement the diet
- Contain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 Vitamin
 - Mineral
 - Herb or other botanical
 - Amino acid
 - Other dietary substances

NCCAM

Office of Dietary Supplements:
Programs

- Evidence-Based Review Program
- Analytical Methods and Reference Materials Program
- ODS Research Portfolio
- Dietary Supplement Ingredient Database
- Surveys of Dietary Supplement Intake
- Health Effects of Bioactive Factors in Foods and Supplements

NCAM



학회활동 활성화 사례 발표

류 은 경(대한한방비만학회 회장, 자인한방병원장)

학회활동 활성화 사례 발표

- 대한한방비만학회 학술대회-

류은경(대한한방비만학회 회장, 자인한방병원장)

▣ 대한한방비만학회 소개

대한한방비만학회 조직도(2005-2006)

학 회 장	류은경 (자인한방병원)
부 회 장	권영달 (원광대학교)
기획이사	송재철 (가로세로한의원)
학술이사	송윤경 (경원대학교)
학술이사	김호준 (동국대학교)
학술이사	이재성 (가로세로한의원)
학술이사	최형석 (최승한의원)
학술이사	심우진 (가로세로한의원)
국제이사	송미연 (경희대학교)
홍보이사	김동환 (아름다운 여성한의원)
전산이사	신승우 (청구경희한의원)
법제이사	김동렬 (가로세로한의원)
편집이사	신현택 (가로세로한의원)
총무간사	진성순 (가로세로한의원)
감 사	차윤엽 (상지대학교)

대한한방비만학회 연혁

- 1997년 3월 발기인총회
장소 : 신사동 감자바우 신현대 외 12명
- 1997년 5월 31일 대한한방비만학회 창립총회 및 창립학술대회
장소 : 리베라호텔 신관 9층
초대학회장 신현대교수 선출
주제발표 : 신현대 교수, 차기철 박사, 조여원 교수
- 1997년 10월 25일 대한한방비만학회 1차 세미나
장소 : 경희의료원 17층 대회의실
경희대학교 부속한방병원 비만클리닉 소개 및 견학
주제발표 : 신현대 교수
- 1997년 11월 29일 대한한방비만학회 2차 세미나
장소 : 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
주제발표 : 김길수 원장
- 1998년 5월 23일 대한한방비만학회 3차 세미나
장소 : 아미가호텔 고야홀
주제발표 : 김석 원장, 김상만 교수
- 1998년 10월 17일 대한한방비만학회 5차 세미나
장소 : 경희의료원 17층 대회의실
주제발표 : 이응세 교수, 정석희 교수
- 1999년 2월 6일 대한한방비만학회 6차 세미나
장소 : 경희의료원 17층 대회의실
비만 진료를 위한 기초생리학 책자 배분
2대 학회장 김길수 원장 선출

- 2001년 10월 13일 대한한방비만학회 14차 세미나
장소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알레그로홀
주제발표 : 정종철 교수, Dr. George W Cherry
- 2002년 4월 30일 대한한방비만학회지 제2권 제1호 발행
- 2002년 10월 4일 대한한방비만학회 공식 홈페이지개설(www.obesity.or.kr)
- 2002년 7월 20일 대한한방비만학회 15차세미나
장소 : 동국대학교 상록원
주제발표 : 이규래 원장, 김길수 원장, 고성규 교수, 조정훈 교수, 김선민, 한을주, 이영준
- 2002년 12월 21일 대한한방비만학회 16차 세미나
장소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알레그로홀
3대 학회장 류은경 병원장 선출
주제발표 : 여에스더 원장, Roland Sarkissian
- 2003년 2월 1일 대한한의학회 정회원학회 인준
- 2003년 5월 10일 대한한방비만학회 정기학술대회
장소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알레그로홀
주제발표 : 박용우 교수, 조미란 교수
- 2003년 10월 26일 2003 대한한방비만학회 연수강좌
장소 : 카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주제발표 : 김호준 교수, 강재현 교수, 송미연 교수, 송윤경 교수, 홍명근 교수, 진영수 교수, 김상만 교수, 송재철 원장, 안영진 원장, 김길수 병원장, 양재훈 원장
- 2003년 12월 1일 대한한방비만학회지 제3권 제1호 발행

- 2003년 12월 7일 2003 대한한방비만학회 정기학술대회
 장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
 주제발표 : 심우진 원장, 김수진 전공의, 한애리 원장, 지명철 전공의, 배정환 부장, 최건식 교수, 송윤경 교수, 송미연 교수, 최형석 원장, 김미영 전공의
- 2004년 3월 6일 2004 대한한방비만학회 총회 및 학술세미나
 장소 : 카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주제발표 : 김상만 교수, 이해우 원장
- 2004년 5월 2일 2004 대한한방비만학회 춘계연수강좌
 장소 : 카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주제발표 : 김호준 교수, 김달래 교수, 송미연 교수, 이성재 교수, 이해우 원장, 오재근 교수, 송윤경 교수, 안영진 원장, 이재성 원장
- 2004년 9월 12일 2004 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
 카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주제발표 : 송윤경 교수
- 2004년 10월 24일 2004 대한한방비만학회 추계연수강좌
 장소 : 카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주제발표 : 송미연 교수, 신현택 원장, 유정서 대표, 김호준 교수, 강재현 교수, 허시영 원장, 장인수 교수, 정재용 대표, 오종철 원장
- 2004년 12월 1일 대한한방비만학회지 제4권 제1호 발행
- 2004년 12월 18일 2004 대한한방비만학회 정기학술대회
 장소 : 코엑스컨퍼런스센터 3층
 주제발표 : 정원석 전공의, 정소영 전공의, 차운엽 교수, 최형석 원장, 김상만 교수, 이재성 원장, 김수진 전공의

- 2005년 3월 19일 2005 대한한방비만학회 정기학술대회
장소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알레그로홀
주제발표 : 박성은 원장, 김달래 교수
- 2005년 6월 5일 2005 대한한방비만학회 춘계연수강좌
장소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주제발표 : 차윤엽 교수, 신현택 원장, 심우진 원장, 송윤경 교수, 송재철 원장, 김호준 교수, 신승우 부장, 최승 원장, 이재성 원장, 안영진 원장, 심우진 원장, 송윤경 교수, 김호준 교수, 정구명 교수, 고성규 교수, 조정훈 교수, 이훈 원장, 인창식 교수, 최승 원장, 이병철 교수
- 2005년 9월 11일 2005 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
장소 : 대한한 의사협회 회관 대강당
주제발표 : 최형석 원장, 송윤경 교수, 김호준 교수
- 2005년 10월 16일 2005 대한한방비만학회 추계연수강좌
장소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주제발표 : 차윤엽 교수, 신현택 원장, 심우진 원장, 신승우 부장, 송윤경 교수, 김동환 원장, 안영진 원장, 이경희 원장, 이재성 원장, 김호준 교수, 홍경희 교수, 장준홍 원장, 이태구 교수, 유병연 교수, 심우진 원장, 최준배 원장, 윤유식 박사, 최승 원장
- 2005년 12월 1일 대한한방비만학회지 제5권 제1호 발행
- 2006년 2월 11일 2006 대한한방비만학회 총회 및 정기학술대회
장소 :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주제발표 : 황덕상 전공의, 송미영 전공의, 최형석 원장, 신현택 원장, 최승범 전공의, 신승우 부장, 이영종 교수

- 2006년 4월 30일 대한한방비만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춘계연수강좌
장소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주제발표 : 조재홍 전공의, 심우진 원장, 최대혁 교수, 신승우 부장, 김동환 원장, 이경희 원장, 곽창규 교수, 최형석 원장, 이재성 원장, 송미연 교수, 송윤경 교수, 손중천 교수, 신병철 교수, 김호준 교수, 차윤엽 교수, 안영진 원장, 임민 실장
- 2006년 6월 30일 대한한방비만학회지 제6권 제1호 발행
- 2006년 11월 19일 2006 대한한방비만학회 추계연수강좌
장소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주제발표 : 심우진 원장, 최승범 전공의, 최형석 원장, 송윤경 교수, 안덕균 소장, 송미영 전공의, 김호준 교수, 김진배 대표, Daniel G. Clark, M.D., 최승 원장, 임태형 원장, 이재성 원장, 심우진 원장, 신병철 교수, 송미연 교수, 송재철 원장, 김길수 병원장, 안영진 대표
- 2006년 12월 30일 대한한방비만학회지 제6권 제2호 발행

대한한방비만학회 편집위원회

신현대 (편집위원장)

경희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송용선 (편집위원회 위원)

원광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임형호 (편집위원회 위원)

경원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금동호 (편집위원회 위원)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오재근 (편집위원회 위원)

한국체육대학교 건강관리학과

이경섭 (편집위원회 위원)

강남경희한방병원 한방부인과

고성규 (편집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한의학임상연구 및 유전체센터

Dympna Gallagher (영문편집고문)

Columbia University

Body Composition Unit Obesity Research Center

St. Luke's-Roosevelt Hospital

신현택 (편집이사)

가로세로한의원

대한한방비만학회 후원 업체

연간후원 업체 (협력체결순)

바이오 스페이스
 다우메디텍
 현대메디텍
 아이제닉

일반후원 업체 (무순)

아이아커뮤니케이션 메디스엘에스 동양허브 미소텍 한의사랑 은성글로벌 기린건강 지오메드 알푸스 자원메디컬 한국TEI 동방침 푸조자동차 에이스메디컬 미래에셋 한림서원의료기 주원메디컬 메디즌통상 의성당 전국의학 BHC코리아 매디저널 비애택 메가메디컬 한다문화사 한우리	네오 패러다임 한미의학 정담출판사 텍서스자동차 복음의료기 AIG생명 새롬메디컬 제이엠씨 휴먼메텍스텍 미본라이프 HSBC 나루샤 아이웰니스 기아대책위원회 태화메디컬 동부의료기 SS모터스 cmp메디컬 KMH 국한모 나라메디컬 대세메디컬 대화메디피아 동서메디텍 IMCE SDM메디컬	메디맥스 메디오스 메스메드시스템 미래메디컬 바디플래너 비메디컬 비즈메딕 생명사랑 선경메디컬 정보사 솔로몬메디텍 스킨닥터스 선택아시아 오리엔트MG 우진메디컬 원메디컬 이레메디컬 일중사 진원메디컬 카스 칼슨코리아 케어원 푸른솔메디라인 피엔피홀딩스 비씨메드 메디타임
--	---	--

대한한방비만학회 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업

- 정기이사회 : 매월 3째 주 토요일 오전7시-9시 아침 시간을 이용함으로 해서 이사진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시간 대비 밀도있는 토의가 가능함
- 학회 이사진의 선정 : 업무 성격에 맞고 역량을 갖춘 이사진을 위촉하고 업무의 철저한 분담을 통해서 효율적인 학회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임상적으로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학술대회의 기획 : 단일 질환명을 중심으로 한 학회의 성격상 임상가에서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술대회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리허설에 이르기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술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 평가를 통해서 추후 학술대회 및 세미나 기획시 반영하고 있음
- 학술 대회 규모의 대형화 : 연간후원업체 및 일반 후원업체의 다수 참여를 독려하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대규모의 학술대회를 치루는 것이 가능해진 상태며, 후원업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티커, 경품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업체 홍보를 하고 있음
-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관리 :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 관리 및 회원병원의 인증 등이 이루어지며, 연회비, 입회비, 학술대회참가비 등의 일체 비용관리가 전자결재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함, 2006년 추계 학술대회의 경우 시범적으로 전자결재를 통한 참가비 결제 및 온라인 등록을 실시한 바 있음

